

2026-1 동아 윤정미 자기 계발 장학금 활동 결과 보고서

60230193 영어영문학과 이유진

동아 윤정미 자기 계발 장학금을 통해 방학기간동안 목표했던 스페인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온 해외경험을 통해 저는 특히 스페인어권 친구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그에 따라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배워 같이 스페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교내 교양수업이나 독학을 통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모국어와 기존에 공부하던 외국인 영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스페인어 시제와 같은 문법 공부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감사하게도 동아 윤정미 장학금에 선발되었고 전문적인 학원을 등록해 혼자 공부했을 때는 어려웠던 문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독학으로 쌓아온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의 시제와 같은 문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수준으로 학습하며 기존 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영문학과 학생으로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하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어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썼던 '영어의 세계화'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영문학도의 시선으로 연구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비교하며 라틴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고 동사 역시 시제 등에 따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굴절어인 반면 영어는 굴절이 단순하여 다른 유럽권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언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페인어의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언어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며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며 스페인어권 문화도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해 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을 통해 기록하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